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4화 사문유관상 ①



과연 수도다나 라자의 생각대로 세명의 부인들은 서로 다투어가며 태자의 하루하루를 즐겁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덧 태자도 그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마냥 즐겁기만 했다. 이때 수도다나 라자는 태자비들을 위하여 작은 세 개의 궁전 말고도 또 하나의 굉장한 궁전을 지어 그곳에서 태자를 위한 노래와 춤이 잠시도 멈추지 않도록 하였다 하니, 일단 출가(出家)하면 부처님이 되실 것이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에 수도다나 라자가 얼마나 철저히 단속하였던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라자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태자의 궁전 둘레에 세 겹의 문을 해 달고 문단속을 엄중하게 하여 한 두 명의 힘으로 는 문을 열 수조차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이때의 이야기가 불전 본행경(本行經)에 기록되어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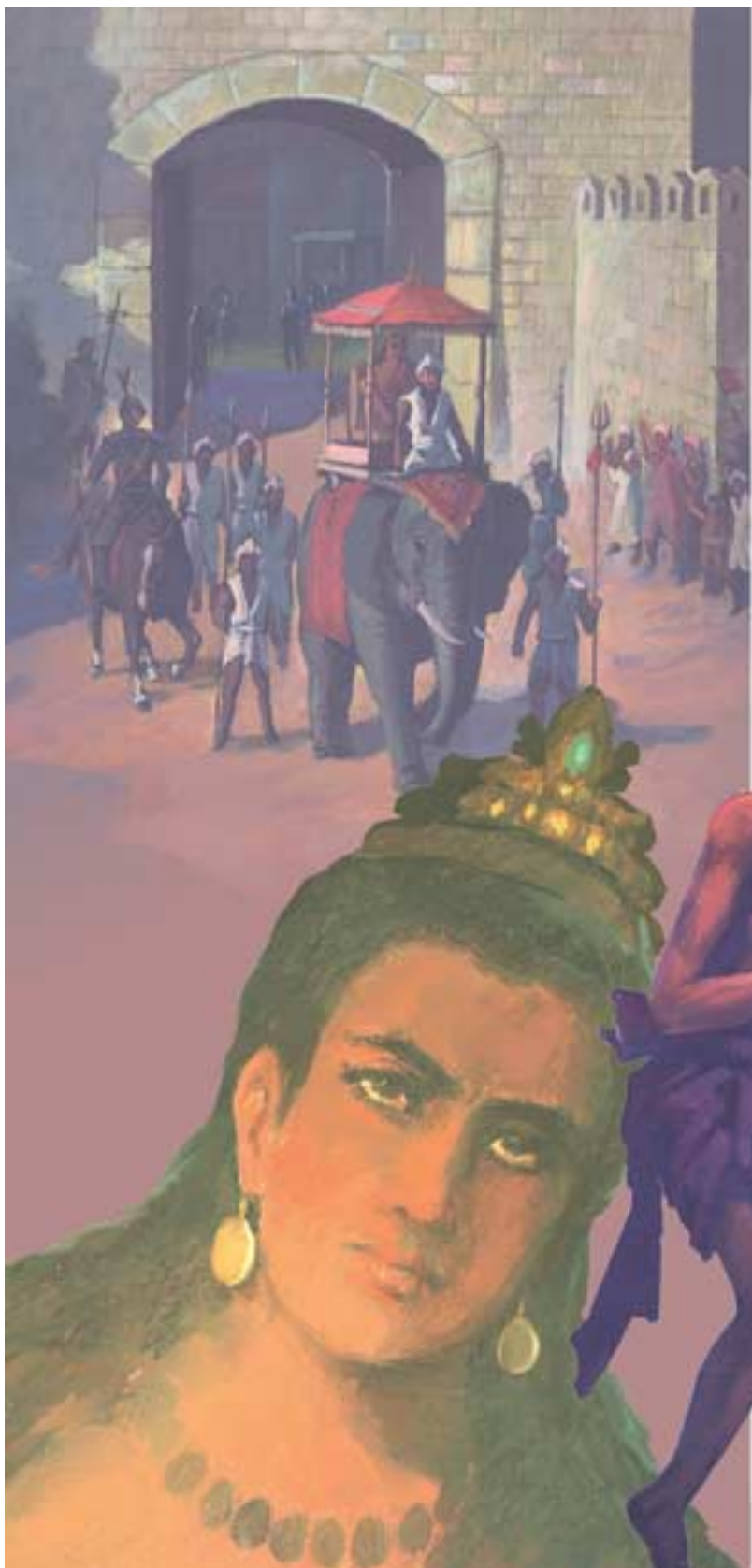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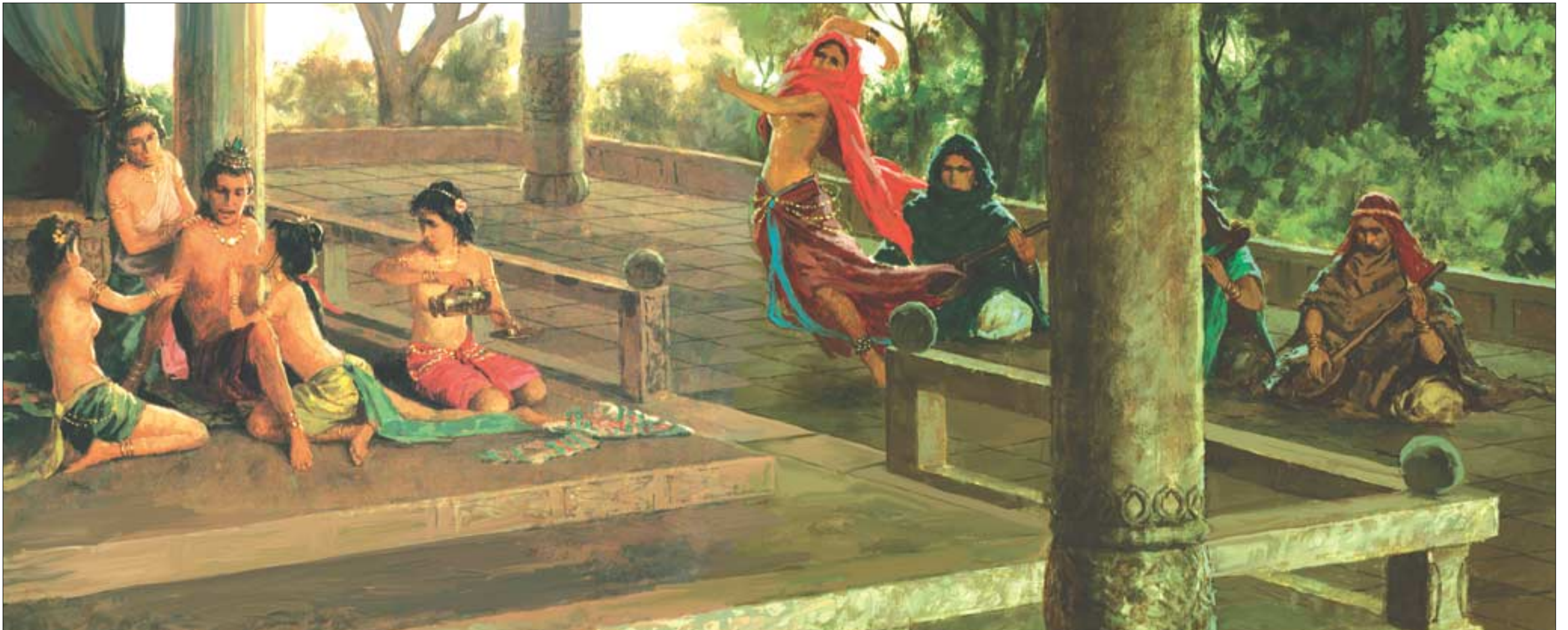
신타트라 태자가 오욕락(五欲樂)에 빠져 헤어지지 못하자 이를 크게 근심한 작병천자(作瓶天子)가 계승으로 경책을 써 나 이 어릴 때 출가하여 정각(正覺)을 성취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때가 인간 신타트라가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유일하게 오욕(五欲)을 즐기며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잘 잘못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기회였었다고 했다.

불전문학(佛傳文學)에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비록 화려극치의 궁중생활이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한정된 공간 속의 생활이어서 어느날 문득 성밖으로 나가 보려고 생각한 태자는 시종들에게 그 차비를 차리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수도다나 라자는 드디어 불안했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에 아연히 긴장하여 신하들을 은밀히 불러 명했다. 태자가 지나갈 길 옆을 미리 깨끗이 청소하고 꽃과 향수를 뿌리어 아름답게 치장시켜 놓도록, 또 총명한 신하로 하여금 태자를 시종들게 하여 혹시 발생될지도 모를 여러 가지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후 비로소 태자의 출궁을 허락하였다.

화려하게 장식된 코끼리를 타고 궁성의 동쪽 대문을 나선 태자는 오래간만에 활기찬 기분을 만끽하며 시원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되었다. 궁성문을 나선지 불과 얼마되지 않았는데 태자는 부왕께서 그리도 보여 주지 않고 감추려고만 했던 사실을 발견하고자 말게 되었다. 그것은 태자의 행렬을 가로질러 걸어가 는 노인들의 모습이었다. 그 노인들은 머리는 거의 다 빠져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머리는 이미 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얼굴은 짙은 주름 투성이로 붉은 혈색을 찾아 볼 수가 없고 마치 부러질 것만 같은 마른 나뭇가지 모양의 팔 다리는 한가닥의 지팡이에 간신히 의지하여 걸어가 고 있었다.



궁전 안에서 아름다운 미녀들 속에서 생활해 온 태자의 눈에 시꺼멓게 탄 피부에 검버섯이 뒤덮인 노인의 모습은 실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아, 아니 저것이 무엇이나?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어찌하여 짐승의 모양처럼 생겼으며 또 어찌하여 두다리로 걸지 못하고 막대기에 의지하여 걸고 있는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리고 있으면 더 불편할 것인데 어찌하여 저런 흉측한 모습으로 걸어다니고 있는가?”

“태자님이시여,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나이까? 저들은 늙은 백성들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저런 모습이 되는 것이옵니다.”

“태자님은 궁성 안에서 아름다운 것만 보며 지내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자님도 장차 늙어가시면 저 노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옵니다. 그것은 저 노인들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인생의 규칙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힘이 있어서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지만 저 노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늙은이들이어서 몸의 기운이 다 소진하였기에 허리를 펴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할 수 밖에 없사옵니다. 사람이 늙으면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을 잃고 저 꼴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운명으로 비록 라자(왕)나 브라만(아) 할 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태자는 갑자기 기분이 울적해지고 슬퍼져서 더 이상 놀이를 갈 생각이 사라져 버렸다.

궁을 떠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되돌아 온 태자 일행은 본 수도다나 라자는 다가오는 커다란 불안감에 여쩍 줄을 몰랐다. 더구나 태자를 수행했던 시종의 보고에 의하면 태자가 결코 보아서는 안될 것을 보고 만 것이 아닌가...

태자가 늙은이를 만나 행차를 되돌렸다면 그는 이미 생(生)과 늙음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 할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을 때까지 고민하는 태자의 모습을 항상 지켜보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던 라자였다.

라자는 거듭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생각하고 있었다. “태자는 보통의 인물이 아니다. 만약 태자가 왕위에 오른다면 그는 전세계를 지배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태자가 출가하면 그는 반드시 정각을 얻고 부다가 되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태자가 반드시 왕위에 올라 우리 사카족을 위하여 주위의 강국들을 제압하고 전륜성왕으로 군림해 주어야 할 텐데...

